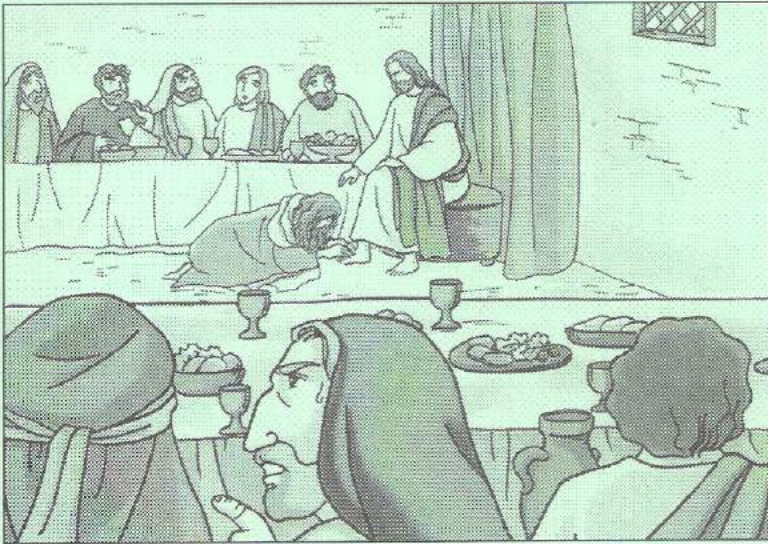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1주일
제36권 29호(다해) 2016년 6월 12일

[묵상]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바리사이, 예수님, 그리고 죄인인 여자.

바리사이는 죄인인 여자를 행실이 나쁜 여자로 완전히 고정.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반면 예수님께서서는
행실이 나쁘다는 사실에 고정되지 않으시고 그 여자의 변화에 주목.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이야.'
하고 고정시켜 버리지는 않는가?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바로 그러할 때 하느님 은총의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튼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2. 문호 개방기의 교회(1882~1911년)

2-3. 신앙생활의 전개

개항기 교회는 가난한 신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누에고치의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여 보급하거나, 신품종 포도를 비롯한 특용 작물을 보급하고 그 재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신자들 상당수가 무전농민(無田農民)이던 상황에서, 교회는 선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토지를 구입하여 신자들에게 소작을 주어 경작시킴으로써 교회의 재정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회와 신자 사이에는 지주-소작인의 관계가 성립되었다. 이 관계는 교회의 토지를 실제로 관리하는 성직자 대 신자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그 밖의 여러 복합적 요인들과 결부되어 당시 형성된 성직자의 권위주의라는 폐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개항기 조선 교회는 순교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고,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개항기 교회는 마리아 신심이나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강조하고 있었다. 1888년 로마에서는 조선 교회를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식이 성대하게 거행되기도 하였다. 1890년 블랑 주교는 조선 교회를 성모 마리아께 봉헌하였다. 당시 교회는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성체에 대한 돈독한 신심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하여 대월 첫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러한 신심을 돈독히 하며 특별한 기도와 의식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물론 당시에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성영회(聖養會) 등과 같은 교회 단체도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회의 신심 운동이나 신심 단체들은 주로 개인 구원을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심 운동 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성의회(聖衣會)가 있다. 교회에서는 연옥 영혼을 구하기 위한 기도가 간절히 바쳐졌다. 신자들은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를 얻기 위한 성사 배령(拜領)과 기도예 열심이였다. 교무금 제도가 시행된 것도 이 시기로, 당시 대부분의 농촌 교회는 추수 후 성탄 판공성사 전에 교무금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성교사규(聖敎四規)에 규정된 연 1회 부활 전 의무적 고해성사가 한국 교회에서는 성탄과 부활 전 연 2회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판공성사 때에는 성사표를 발부해서 효율적으로 신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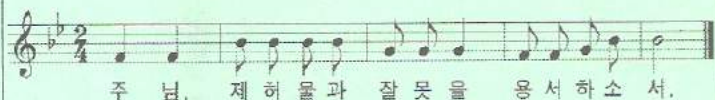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49	249	249
봉헌	264	264	270
성체	286	286	286
파견	234	234	311

토요 저녁 미사	(연) 김종열 아가비도 & 김두조 베드로 & 김봉순 마리아 & 김옥희 세실리아 수녀, 홍화선 (생)
주일 학생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이용식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김중선 올리아,, 김상진 토마스, 김용희 안드레아,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김홍달 요셉, 이재우 마티아, 박희성 테레사 & 김계성 아가다, 이정석 & 김동수 (생) 첫 영성체 아이들, 황윤재 베드로 가정, 박정미 클라라, 티파니권 요세피나, 서은지 마리아 & 안상훈 라파엘 가정, 박니콜, 박영식 안드레,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 하(Samuel) 12,7-10.13

화답송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2,16.19-2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복음 루카 (Luke) 7,36-8,3 <또는 7,36-50>

영성제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너는 죄를 용서 받았다."(루카7,48)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참된 기쁨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 없는 사람, 죄가 크고 많지만 회개하는 사람, 작은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중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고 반기실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과 행실이 나쁜 여자로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한 죄 많은 여인이 진정한 회개로 오히려 하느님의 더 큰 사랑과 용서를 받는다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즉 죄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만, 죄의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사무엘 하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의 범죄 사실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에게 반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여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그를 취하게 만든 다음 집으로 돌려보내 아내와 잠자리를 갖도록 합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야는 두 번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잤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야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총사령관은 다윗의 편지 내용대로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남겨두고 후퇴하여 우리야를 칼에 맞아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야의 애도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거의 완전범죄 같지만 어찌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예언자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상을 낱알이 밝히고 그를

꾸짖으십니다. 다윗은 그 즉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2사무 12,13) 하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느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다윗이 진정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은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하며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한편 바리사이는 자신은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여인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단죄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초대를 받아 미사에 참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죄 많은 여인과 바리사이 중 누구를 닮았을까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이 바리사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진심 어린 참회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성스런 마음의 예물을 봉헌함으로써 죄 많은 여인처럼 예수님을 꼭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

◆홍인식 마티아 신부 / 일원동성당 주임

성인 말씀

계명을 지키고 선을 실천하고 은총의 생명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성체성사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레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혜경 레나타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요셉회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첫영성체 축하합니다. ✽

- ◆ 주일학교 어린이 첫영성체 예식과 축하식
 - 오늘 주일(12일) 낮 11시 미사중에 8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의 성체를 처음으로 모십니다.
 - 첫 영성체 대상자 :
문 빅터, 이아우구스티노, 이 앤서니, 이 다니엘,
조 안드레아, 카타리나 로, 한 알렉스, 황 이레네, (이상 8명)
 - 예식이 끝난 후 친교장에서 축하식이 있습니다.

◆ 요셉회 정기 총회 공고

- 일시 : 6월19일(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친교장
- 안건 : 신임회장 선출 및 회칙, 일년행사계획
65세 이상 누구나 참석 환영합니다.
- 문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방학기간 주일 미사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미국 신부님들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6/26 주일부터 8/28 주일까지

◆ 본당 주일학교 교장 및 교사초빙 안내

우리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주일학교 교장과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를 꼭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여름 특강
 - 일시 : 6월18일 ~8월7일 (7월 2일 제외)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 12:30
 - 신청마감 : 6월 12일 (일)
2. 백삼위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 등록 접수
 - 6월 19일까지 접수시 20% 할인혜택
3. 2015-16년도 한국학교 종업식
 - 장소 : 강당
 - 일시 :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3시
4. 백삼위 한국학교 여름 수학 교실
 - 일시 : 6월 25일 ~ 8월 7일 오전10시~오후12시
 - 대상 : 현재 A (5,6학년), B (7,8학년)
 - 각 그룹 별 선착순 5명
 - 문의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사회복지분과 무료상담소

오늘주일(12일) 아침미사후 강당에서 11미사 후 친교장에서 있습니다.

◆ 후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후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12일(주일) : *토남1,2반(소고기 무우국 \$3)
* 주일학교 (5학년: 치킨 까스)
- 6월19일(주일) : *토북 1,2반(잔치국수\$ 3)
* 주일학교 (4,7학년: 피자)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성전헌금
김기정 김병조 김상규 김선영 김선제 김순옥 김여순 김영정 김윤진 김일선 김재성 김준순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종훈 김진현 김철민 남명자 남인구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반비오 반정이 방정복 배기열 배태임 변복순 서용숙 송재훈 신용섭 안재만 양영자 오강남 오일순 우영희 유선식 유희연 윤희동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상곤 이상석 이영희 이종태 이형삼 이형삼 이효세 임연조 전재식 전정일 정인옥 정훈모 주대중 주용순 차병용 차정애 최미열 최진수 한혁수 현석주 황인종 황지영	김기정 김병조 김선제 김윤진 김재성 김철민 남명자 남인구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반비오 방정복 변복순 서용숙 안재만 양영자 유선식 유희연 윤희동 이근모 이근태 이상곤 이상석 이영희 이종태 이형삼 이효세 전재식 정인옥 정훈모 주대중 주용순 차병용 최미열 최진수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주일미사헌금 : \$2,280 감사헌금 : \$ 540 (박이레네, 최동한)	2차헌금: \$659 성물판매 이익금 : \$ 480 기타수입: \$300
합계: \$7,230	합계 : \$3,965

◆ 온라인 비즈니스회사 채용공고

- CS/Inventory/Marketing 부분
- 관심있는 교우 분께서는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 주세요.
- buy2korea03@nate.com 담당자 : 서혜미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남가주 소식

◆ 성서 사십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첩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일시 : 6월18일(토요일)
- 미사 : 11시 김종기 요셉 신부님, 식사 : 정오
- 장소 : 작은예수회 LA분원 (올림픽과 실로암 약국이 있는
아라파호 골목길)

1137Arapahoe St. Los Angeles, CA 90006

◆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신호진 구네군다(213) 503-7909

◆ 일상 삶 안에서의 영신 수련

- 지도 : 예수회 최준열 다미아노 수사
- 일시 : 2016.6.4~2017년 3월초,매주 토2시~5시pm
- 장소 : 성 아그네스 한인성당
- 문의 : 정 도로테아(818)321-9505

장 켈마 (224)305-444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6/9(목)오후4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6/11(토)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6/17(금)오후7시30분 성당
539-3377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6/25(토)오후5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오상준 토마스 6/11(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6/17(금)오전10시30분 성당
200-0512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방지거 6/17(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14(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김유미 사비나 6/18(토)오후6시30분
508-2912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6/19(일)오후6시
	2	1반과 같음	
404-1607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1(토)오후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송재훈 필립보,377-4219 6/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관영 레오 6/17(금)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 루시아 562-355-0499 6/4(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6/14(화) 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매일매일 기도하며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때면 저는 종종 고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매일 매일 기도를 드리자.' 그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대부분 도와달라는 내용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느님께서서는 과연 좋아하실까? 하느님께서 나를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왜 기도를 드리면 항상 도와달라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걸까? 그렇게 저는 기도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친구의 목소리는 꽤나 힘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힘이 되는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아 이 말 저 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이런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성당에라도 가서 하느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라도 드리고 싶은데....
웬지 혼자 가기엔 좀 쑥스러워서 같이 가줄래?"

우리는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녀석은 성모 마리아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물을 푹푹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다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느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끝낸 후 친구는 무언가 가슴 가득 막혀 있던 체증이라도 풀어진 듯 비로소 여색하게 웃었고 그제서야 기도를 드리며 울어 버렸던 게 쑥스러웠는지 멧쩍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라도 할 수 있어서 진짜 좋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 지쳐서 주저 앉고 싶을 때도 있고 누군가의 품에 안겨 막 울어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애타게 도와달라며 매달리고 싶어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매일 매일 기도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이니깐 도와달라는 내용뿐인 기도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처음엔 온통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뿐이더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타인을 위한 것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오히려 대견해하고 기뻐해주시지 않을까요?

하느님, 오늘부터 매일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 윤건 마르코 / 가수

[교리상식]

성체조배란 무엇인가요?

☞ 성체 앞에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성체조배라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자주 성체조배하기를 권고합니다.

성 알폰소는 "15분간의 성체조배로 얻은 것은 하루 동안 다른여러 가지 신심행사로 거둔 것보다 훨씬 크고 은혜로운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 「PD 하느님, DJ 예수님 / 바오로딸

[길을 찾는 그대에게]

막내며느리가 될 집안은 독실한 개신교입니다. 결혼하면 격주로 번갈아서 교회와 성당을 가자고 언약했다는데, 관면 혼배 등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 일일지 몰라 문을 두드립니다

☞ 주신 글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아드님의 결정이 그릇되다는 걸 정확히 일깨워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현명한 일이니깐요. 믿음이란 타협할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하, 답답한 마음에서 상상을 해봅니다. 한 주일씩 건너 찾은 성당에서 매 주마다 지난 주일 미사를 거른 것을 고해하면서 마음이 어떨까요? 또 아내를 위해서 '방문'하는 개신교회에서는 관람자 이상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혼돈의 상태에서 과연 진정한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언약을 사랑의 결정이라고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야말로 너도 손해 보지 않고 나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협상으로 끌어낸 잔꾀일 뿐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섞고 자기 감정을 혼합하고 자기 편의와 형편에 궤 맞추어 해석하는 일은 그릇됩니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신앙자리를 지키도록 권하는 게 옳겠습니다. 부부가 진심을 다해 갈라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상대의 믿음생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훨씬 주님 보시기에 좋을 것이라 믿습니다. 서로가 각자의 교회 안에서 더욱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관면 혼배 등 제반 사항은 본당 신부님과 의논하시면 잘 도와주실 것입니다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해 동안 지은 농사가 너무나 잘되어 곡식이 넘쳐흐를 정도이니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인이 질문했습니다. “주인님, 소출이 너무 많아 창고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자는 한참 궁리를 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 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생각 끝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16-18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계속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곳은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처치 곤란입니다. 인간은 본래 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 생각만 했기 때문에 저장할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집을 비워도 항상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의 재물을 영원히 쌓아두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부자는 잠자리에 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19-21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살펴보라고 하시며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골방도 곳간도 없는데 하느님께서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무엇이랴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2,22-32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소유와 인생이 영원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고 자신의 재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로 해가 떠오르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가볍고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나의 재물이 영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루카 12,20)

“그리고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루카 12,27)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나를 위한 격려

남의 말 들어줄 줄도 모르고,
상대방 마음 짚어 줄 줄도 모르고,
노여움 참을 줄도 모르고,
언짢음 감출 줄도 모르고,
도무지 모르는 것 투성이인 내게도 장점이 있었네.
맛없는 음식도 잘 먹어주는 것.
맛없는 음식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폴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남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사문*마리암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 (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국 장 의 사

LA(FD74), 놀릭(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01124 / C088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해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